

## 먼저 헤아려주신 편의

명절날, 휴식일에도 수도의 불장식정형을 료해하시느라 밤길을 달리시며 거듭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날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 평양시 공공건물과 봉사건물, 고층 살림집들에도 불장식을 많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사실상 고층살림집에서 사는 주민들은 잠자는 시간에 불을 켜놓으면 불편해질것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불장식기구들에 불을 켜는것도 필요한 시간까지 켜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시려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고도 그들의 단잠에 지장이 있을세라 그토록 마음쓰시였다.